



4면 제2기 전북학생의회 첫걸음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음 2월 9일) 제34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북자치도-노동부 손 잡아

‘농식품산업 노동 상생일자리’ 공모 최종 선정 따라
올해 국비 20억 투입 2027년까지 상용직 6540명 매칭
지역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상생협력 등 5개 중점방향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체감형 일자리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대응해 신청한 ‘전북 농식품산업 노동 상생일자리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최종선정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터 호텔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외에 부산, 인천, 충북, 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일자리 개선 사업이다.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농촌 초고령



지난 15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터 호텔에서 열린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화와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고, 식품제조업의 구인수요가 21.7%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에 국비 20억원, 도비 5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부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2027년까지 상용직 6,540명, 일용직 20만7,000명을 매칭해 농식품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범부처간 고용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지역내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상생협력, 기업지원,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5개 중점방향으로 추진한다.

본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1단계로 농식품산업의 1차, 2차 산업군에서 범부처 통합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 2단계는 물류서비스인 3차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3단계는 농생명·바이오산업까지 확산시켜 6차산업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네트워크 협의체로 교육훈련협의체 등 3개의 분과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농식품산업 특화 고용서비스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K-FOOD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농생명산업 수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등 대표단은 대규모 지진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하세 히로시 현지사와 면담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응원하고 있다.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 기원”

김관영 도지사 등 전북자치도 대표단
‘지진피해’ 일본 이시카와현에 위로 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대표단은 지난 15일 대규모 지진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 하세히로시 현지사, 켄다 요시히코 현의장과 각각 면담하며 위로를 전하고 전북자치도와 이시카와현의 강한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

하세 히로시 현지사와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현민에게 전북자치도민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기원한다”며 위로한 뒤 이시카와현의 지진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전북자치도의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 직접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20년 넘게 이어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했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월 1일 지진발생에 따른 위로서한을 발송한 뒤 1월 16일 이시카와현 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상황을 듣고 전북자치도민들의 진심이

린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사망자 241명, 부상자 1,427명으로 집계, 주택 81,984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으며, 약 23조 6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 중대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문화·예술·청소년 등 교류관계를 유지해 온 이시카와현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금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시카와현은 지난 2001년 양 지역간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약 23년간 청소년, 행정, 문화, 환경, 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긍정평가 조사에서 4개월째 3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월 들어 상위 그룹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김관영 지사는 전남 김영록 지사, 경북 이철우 지사와 차이를 좁혀가는 등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 정 전반에 대한 긍정 여론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김관영 도지사, 광역지자체장 긍정평가서 4개월째 3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월 65%로 전월비 4.1%p ↑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 지사의 긍정 평가는 65%로 전월 대비 4.1%p(전월 60.9%) 상승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68.8%), 2위 이

철우 경북지사(66.8%)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선 김영록 전남지사(68.8%·전월대비 2%p 하락)·이철우 경북지사(66.8%·전월

대비 3.3%p 상승)와의 격차를 전월보다 6.1%, 0.8% 좁혔다.

이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진취적인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도민들이 전북자치도의 활기찬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바이오 육성 기반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북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의 의지와 함께, 전북이 가진 장점과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한

다는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각오로 도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모여들고 있다”면서 “그간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침체된 정서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재도약의 발판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MUJU

2024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무주방문관광할인이벤트

머루와인동굴,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천문과학관

- 이벤트① : 관내 모든 상가(숙박업소,음식점,카페,마트 등)에서 총 10만 원 이상 결제 영수증 인증 → **입장료 50%할인** (최대 2인)
*관내 시설 방문일 기준, 2일 이내 영수증 지참 필수
*단체관광객 할인, 무주군민 할인 등 중복 할인 불가
- 이벤트② : 반디랜드 **통나무집 이용료 30%할인** (2024.4.-12월 중)
- 이벤트③ :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숙박료 30%할인** (2024.4.-12월 중)

무주관광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

무주자연특별시